

### 핵심주제

- 2018동방경제포럼에 인도 공식방문단 참가
- 9월 11-16일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극동의 거리' 전시회 진행
- 총 규모 3조 8000억 루블의 1375 개 투자프로젝트 신규발전정책에 힘입어 극동에서 추진중



## 동방경제포럼 뉴스

2018년 7월 30일, 'Komsomolskaya Pravda'

### 2018동방경제포럼에서 러중관계 발전 새로운 동력 얻을 전망

모스크바에서 안톤 코바코프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과 리후에이 주러 중국대사와의 경제분야 다자 국제 포럼을 통한 러중 협력을 주제로 한 면담이 있었다. 2018년 동방경제포럼 중국 대표단 방문 준비가 주로 논의되었다.

러중협력을 주제로 한 사진전, 2018동방경제포럼 스포츠 행사의 일부인 칭다오-블라디보스토크 구간 '극동컵' 범선경주 추진을 포함하여 여러 행사 조직과 관련된 부분이 논의되었다.

<https://www.kp.ru/daily/26861.5/3904113>

2018년 7월 30일, 'RIA News'

### 9월 11-16일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극동의 거리' 전시회 진행

행사에 극동연방관구 9개 지역, 연방 집행기관 및 특별 초청된 케메로보 주가 참여한다. 전시회에서 극동의 경제잠재력, 문화 및 전통, 관광을 소개한다. 전시회는 9월 11~13일간 2018동방경제포럼 참가자들을 위해 진행되고 9월 14~16일은 모든 관람객들을 위해 공개된다.

<https://ria.ru/economy/20180730/1525565950.html>

2018년 7월 26일, 'Interfax'

### '루스키' 테크노파크 입주기업들 성과 2018동방경제포럼에서 발표

'루스키' 테크노파크 개장식은 2017동방경제포럼에서 거행되었다. 작년 9월부터 극동연방관구의 6개 지역 65개 기업이 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이 되었다. 모든 입주기업들은 혁신프로젝트들을 추진하며 극동연방대 학생, 대학원생, 교수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http://www.interfax.ru/events/news/622610>

2018년 7월 18일, TASS

### 2018동방경제포럼에 인도 공식방문단 참가

프라부 인도 상공부장관이 공식방문단을 이끌 전망이다. KGK Group, The Tata Power Company Limited, Sun Group, Jungle Travels India, Assam Bengal Navigation Company, Suzlon Ltd 등 인도 사업계 경영인들이 방문단에 포함될 예정이다.

인도 방문단은 '러시아-인도'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를 포함한 포럼 공식일정에 참여하여 양국의 정부관계자들과 사업가들이 러시아 극동 내 공동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된 안건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http://tass.ru/novosti-partnerov/5383523>

2018년 7월 13일, Lenta

### 프랑스 공식방문단 제4회 동방경제포럼 참여

베르만 프랑스 대사가 이끄는 프랑스 대사관과 러시아-프랑스 상공회의소 공동 고위급 사절단이 9월 11-13일간 열리는 제4회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로스뱅크', '인시스템스', Engie, Servier Russia, Electroshit - TM Samara, 엔지니어링 그룹사 'ARMO', Poma, VINCI Concessions, AECOM 등 러시아-프랑스 사업체 경영진 20명이 사절단에 포함된다.

<https://lenta.ru/pressrelease/2018/07/12/francevef>

2018년 7월 6일, FederalPress

### 제4회 동방경제포럼 참가자들을 위해 7000개 호텔 객실 준비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동방경제포럼 조직위는 블라디보스토크의 22개 호텔들 및 극동연방대 캠퍼스와 객실예약계약을 체결하였다. 1800개 객실은 포럼 주최측이 블라디보스토크 시내 호텔들에 마련하였으며 4400개 이상은 극동연방대학교 캠퍼스 내 준비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동방경제포럼 참가자들은 고급 크루즈선인 Costa NeoRomantica에 숙박할 수 있으며 다양한 등급의 총 700개 쾌적한 선실이 마련되었다. 선박의 비즈니스 및 레저 시설은 포럼 문화행사 진행에 사용될 예정이다.

<http://fedpress.ru/news/25/society/2085434>

## 극동 국가정책

2018년 7월 20일, Izvestiya

### 전문가들은 극동 지역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 논의

7월 20일 모스크바에서 제4회 동방경제포럼 준비의 일환으로 '극동 인적자원개발: 문제점과 해결책'을 주제로한 원탁회의가 있었다. 코즐로프 극동개발부 장관, 지역정부관계자들, 전문교육분야 전문가들, 프로젝트들을 추진하는 투자자들이 행사에 참여하였다.

향후 3년간 극동 사회발전에 558억 루블 투자계획이 언급되었다. 투입된 예산은 어린이 집, 학교, 병원, 체육시설, 도로 등 인프라 건설 및 조경, 장비구매에 사용된다. 코즐로프 장관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극동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고급 인력

의 극동 이주를 촉진시킬 수 있다.

<https://iz.ru/769194/2018-07-20/eksperty-obsudili-voprosy-uluchsheniia-kachestva-zhizni-na-dalnem-vostoke>

2018년 7월 4일, RIA News

### **푸틴 대통령,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체제 확장 승인**

이번 대통령령을 통해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체제가 하바롭스크 주 소베츠키야 가반 군에도 확장 적용된다. 이로서 자유항 체제가 극동의 22개 시도군에 적용되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체제 확장을 통해 소베츠키야 가반에 총 545억 루블 규모의 15개 투자 프로젝트들을 추진할 수 있게된다. 8년간 거둬들일 지역 및 연방정부 세금수입은 약 43억 루블로 추정된다. 신규 사업체 가동으로 18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https://ria.ru/economy/20180704/1523893192.html>

## **극동 경제**

2018년 7월 17일, TASS

### **트루트네프 부총리, 총 규모 3조 8000억 루블의 1375 개 투자프로젝트 신규발전정책에 힘입어 극동에서 추진중**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가 올해 7월 17일 있었던 극동 및 바이칼지역 사회경제발전 정부위원회 극동 및 바이칼지역 투자프로젝트 추진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밝혔다.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2025년까지 12만 7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트루트네프 부총리에 의하면 현재 총 투자규모 1400억 루블의 129개 산업체가 가동되었다.

<http://tass.ru/ekonomika/5380465>

## **극동개발신규정책: 성공사례**

2018년 7월 13일, Vesti

### **‘하바롭스크’ 선도개발구역에 극동 최대 물류단지 조성**

‘아방가르드’ 산업파크가 15헥타르 면적의 단지를 건설중이다. 1차 단지는 2개의 A급 물류창고와 1개의 다운도창고로 구성된다. 완공은 2019년 제2사분기로 예정되어있다. 산업파크의 지리적 이점인 신규 진입로, 컨테이너 터미널, 철도 지선이 창고의 물류 효율을 극대화한다.

<https://www.vestifinance.ru/articles/103907>

## **참고정보:**

**2017동방경제포럼 조직사 – ‘RosCongress’ 재단은 컨벤션 및 전시회 행사 조직분야 최대 회사이다.**

‘RosCongress’재단은 컨벤션, 전시회 및 공공행사 조직을 통한 러시아의 경제 잠재력 및 이미지 강화 기여를 목적으로 2007년에 설립되었다. 재단은 행사 콘텐츠를 제작하고 기관 및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정보, 자문 지원을 제공하며 총체적인 러시아 및글

로벌 경제 연구, 분석을 진행한다. 오늘 재단이 매년 진행하는 행사들은 몬테비데오부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개최지가 다양하며 이를 통해 한 자리에 세계 사업계의 리더들, 전문가들, 언론인들, 정부관계자들을 모을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들을 논의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조성하며 공익사업과 자선프로젝트를 지원할수있다.

[www.roscongress.org](http://www.roscongress.org)